

학교와 사회환경교육의 연계 발전 사례 <1>

- 산림청의 산림환경교육 시책 추진현황과 발전과제 -

김 용 하

(산림청 산림문화과장)

1. 들어가는 말

이정일 의원이 2002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대표발의하여 현재 계류중인 환경교육진흥법안에서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전 국민으로 하여금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 가치관을 습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실시하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교육 개념에서 볼 때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림환경교육은 산림생계 구성인자 및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이해, 임업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통하여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산림은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데 대한 태도, 가치관을 함양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연자원관리 기관이 실시하는 산림환경교육이 환경교육의 주요 분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환경교육법에서 산림청의 환경교육에 대한 역사성과 전문성 등을 인정하고 그 역할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산림이 환경교육의 중요한 장소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산림은 우리의 생명을 지지해주는 근원이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경제적·환경적·생태적·사회적·문화적 기능이 복합적으로 발휘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토의 64%가 산림인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은 우리의 사고와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왔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산림청의 산림환경교육관련 시책 추진연혁과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앞으로 산림환경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II. 산림환경교육관련 시책 추진연혁

산림청에서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강원도 강릉시 대관령 지역 국유림에서 천막을 치고 중·고등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임간수련을 실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80년대부터 산림환경교육이 가능한 기반 시설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박물관 등의 시설을 적극 조성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광릉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은 산림환경교육의 주요 장소로 적극 활용되었으며, 자연휴양림의 경우 숲해설, 숲속음악회 등 다양한 산림환경교육 및 산림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대초부터 산림교육과 산림문화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특히 주5일 근무제의 도입 및 확산으로 국민의 야외 휴양수요가 급증하자 산림을 교육적 문화적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정부는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 5월 24일 산림기본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동법 제2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위한 산림교육과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산림휴양,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진흥정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11일자로 산림청에 산림문화과를 신설하였다.

산림기본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부터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청 자체 예산은 물론 녹색자금, 마사회 자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산림환경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는 물론 (사)한국산악회, (사)숲해설가협회,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한그루녹색회 등 다양한 시민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표 II-1> 산림청의 산림환경교육관련 시책 연혁

연 도	주 요 내 용
1978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임간수련 시작(대관령)
1979	○ 인제 한계초등학교 폐교를 인수 임간수련장 조성 - '03까지 17개소 조성
1987. 4.	○ 광릉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개장
1986	○ 지방수목원 조성 착수(제주 한라수목원)-'03.10월 현재 8개소 조성
1988	○ 자연휴양림 조성 착수(유명산)-'03.10월 현재 93개소 운영중임
1991	○ 푸른숲선도원 선발 및 육성 시작 ○ (사)자생식물협회와 우리꽃 박람회 개최 시작
1992	○ 지방 산림박물관 조성 착수(공주 산림박물관)-'03.10월 현재 5개소 조성
1993	○ 광릉수목원에서 숲과의 만남 행사 운영 시작
1994	○ 광릉수목원에서 녹색수업 운영 시작
1996	○ 산림문화 개념 정립 연구용역 추진
1997	○ 산림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97~2006)
1998	○ IMF 지원사업으로 자연환경안내자 과정 운영(35명 이수)
1999	○ 자연휴양림에 숲해설가 배치 운영 시작 ○ 나무와 숲에 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연구용역(교사용 지도 지침서)
2000	○ (사)숲해설가협회에서 숲해설가 양성과정 운영 시작 ○ 초·중·고 교사를 위한 산림환경교육 과정 운영 시작 ○ 산림환경교육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2001.5.24	○ 산림기본법제정(산림교육진흥 및 산림문화 창달 규정 반영)
2001	○ (사)한국산악회와 공동으로 청소년 백두대간 생태탐방 시작 ○ 산림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산림문화작품공모전 시작 ○ 학교숲 조성사업 지원('99년부터 생명의숲에서 시작) ○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청소년 숲 캠프 운영 시작
2002.9.11	○ 산림청에 산림문화과 신설(산림교육, 문화진흥 기능 강화) ○ 산음 자연휴양림에서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2003	○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대비한 「산림휴양·문화진흥종합대책」 수립 ○ 녹색자금을 활용 녹색수업 운영 지원 확대 (1 → 11개기관) ○ 녹색자금을 활용 숲체험코스 조성사업 지원 (8개소) ○ 녹색자금을 활용 대학의 산림분야 사회교육 지원 (12개 대학) ○ (사)한국산악회와 공동으로 등산학교 프로그램 운영 ○ 참여형 국유림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산림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 녹색교육센터 설립 착수 ○ (사)생명의숲과 공동으로 소년소녀가장 산림생태기행 운영

Ⅲ.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 현황

본 장에서는 산림청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직접 일반인과 청소년 등에게 산림에 대한 이해와 자연학습 체험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산림교육 프로그램과 산악자전거 대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 등 산악레포츠에 직접 참여하거나 숲을 소재로 한 작품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산림문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중 녹색수업, 숲해설, 학교숲 체험, 산림환경생태교육에 대해서는 세부 교육내용 또는 프로그램 진행방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1. 산림교육프로그램

가. 녹색수업(Green School)

녹색수업은 산림청 국립수목원⁵⁾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녹색수업은 청소년에게 숲의 중요성과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숲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5년 3월부터 서울, 경기지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말까지 총 65천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2003년도에는 5월부터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인원은 12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수업 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일정으로 짜여져 있으며, 세부 교육운영은 수목원과 산림박물관 자연관찰 학습과 숲속 보물찾기, 연필꽃이 만들기, 내나무 찾기 등 현장체험 학습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연관찰 학습은 습지원, 관상수원, 온실, 맹인식물원, 관목원, 화목원, 수생식물원, 산림박물관의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 체험학습으로 내나무 찾기는 일정 구역내에 20개 정도의 나무를 선정하고 조별로 내나무를 선정하고 눈가리개를 한 조장이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숲속 보물찾기는 보물목록을 만들고 이를 강사가 설명하면 조별로 보물을 찾아

5) 국립수목원은 '99년 5월 산림청 소속기관으로 신설되었다. '87년 광릉수목원이 개장된 이후 국립수목원으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산림청 임업연구원 중부임업시험장 광릉수목원으로 운영되었다.

보물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필꽃이 만들기는 연필꽃이 재료와 망치, 못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만들게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2003년도 9월부터 녹색자금을 지원받은 전국 5개 지방수목원 및 5개 지자체 자연휴양림에서도 녹색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 산림학교

산림청이 조성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중 5개소에서 산림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곳은 산음 자연휴양림 산림학교이다. 산림학교 운영은 2001년도 산음 자연휴양림 숲속수련장을 대상으로 산림학교 프로그램 운영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음 자연휴양림의 산림학교의 경우 북부지방산림관리청과 (사)숲해설가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 일반인, 가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교육기간은 1박2일, 2박3일 과정으로 되어 있다. 2003년도의 경우에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숲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 대한 산림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녹색자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음휴양림 산림학교의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첫째날 점심식사후 추적놀이, 티셔츠에 자연물 무늬찍기, 자연놀이, 둘째날, 숲속 여행, 하천탐사, 나무목걸이 만들기, 요리만들기, 셋째날 자연과 호흡하기, 도감만들기, 점심식사후 해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장애인을 위한 2박 3일간 교육내용 구성은 첫째날 점심식사후 숲속여행, 나무목걸이 만들기, 자연놀이, 둘째날 자연과 호흡하기, 티셔츠에 자연물 무늬찍기, 숲속 음악회, 자연놀이, 솜씨자랑, 셋째날 자연과 호흡하기, 자연물 모으기, 자연물 전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세부 교육내용은 산림학교 연구용역 보고서 참조).

다. 숲해설

자연휴양림 숲해설 프로그램은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자에게 숲과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탐방 방법을 안내해 주기 위해 1999년부터 산림청에서 조성 운영하고 있는 국유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는 국립수목원으로 확대되었다. 2002년말까지 총 126천여명이 숲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숲해설 프로그램을 담당할 숲해설가는 매년 산림청에

서 자원봉사자 형태로 모집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림분야 대학교수, 전직 산림공무원, (사)숲해설가협회 소속 회원 등에서 선발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숲해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휴양림별로 주변 산림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숲 체험코스를 조성하고 자기 안내식 또는 숲해설가에 의한 안내식 숲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유명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650m 구간의 숲체험코스에 18개의 포인트를 설정하고 산림생태계의 구성인자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강소나무 군락지가 있는 대관령 자연휴양림의 경우 약 600m의 구간에 소나무를 주제로 한 숲 체험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표 III-1> 유명산 및 대관령 자연휴양림의 숲체험코스

포인트	유명산자연휴양림	대관령자연휴양림
stop 1	숲속의 다양한 생태계	한민족의 기상 - 소나무
stop 2	여린 마음을 가지 속에 감추는 밤나무	대관령 자연휴양림의 소나무
stop 3	숲과 인간이 만나는 곳에 사는 새 - 꿩	성주신화를 아십니까?
stop 4	숲이 키우는 버섯	소나무 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stop 5	잣나무 아래 숲의 조용한 경쟁	녹색 솔방울, 갈색 솔방울
stop 6	숲을 가꾸는 싸리	소나무 숲 가꾸기
stop 7	숲의 사냥꾼 - 거미	조상들의 소나무 보호 '송금절목'
stop 8	숲의 생명을 담아내는 샘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숲 - 뿌리
stop 9	지의류가 만드는 바위위의 작은 숲	소나무의 천적 솔잎혹파리
stop 10	숲의 토양을 가꾸는 두더지	변화하는 소나무 숲
stop 11	다음 숲의 주인 - 참나무	소나무 숲속의 동물들
stop 12	인간이 가꾸는 숲 - 낙엽송	소나무의 친척들
stop 13	부지런한 수의 일꾼 - 벌	늘 푸른 솔잎
stop 14	숲을 키우는 새 - 어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
stop 15	그늘 아래 작은 숲 - 이끼	후세에 남겨줄 소나무
stop 16	숲과 함께 자라는 덩굴식물	
stop 17	생태계를 밝히는 빛 - 태양	
stop 18	균형을 이루는 숲의 생태계	

라. 등산학교

등산학교 운영은 2003년도부터 산림청과 (사)한국산악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전문 산악기술을 가르치는 일반 등산학교와는 달리 자연친화적인 등산요령, 산림내 야생동식물 관찰 요령, 기초적인 야영요령, 독도법, 조난시 대피요령, 암벽타기 등을 교육하고 있다. 강사진은 대부분 (사)한국산악회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및 민간단체의 전문가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일반부와 산림공무원반, 학생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여름방학기간동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등산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백두대간을 5개 내지 9개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별(평균 100km 내외)로 학생 20명, 전문 산행가이드 5명, 생태전문가 또는 숲해설가 2명으로 구성되어 5박 6일간 직접 구간 산행과 야영을 하면서 백두대간의 산림생태와 인문·사회·문화적 유산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마. 초·중·고 교사 산림생태환경교육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숲과 산림생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산림사업에 대한 현장 체험을 통해 산림과 임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 임업연구원 임업연수부에서 2000년도부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1회 5박 6일간 일정으로 산림생태환경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02년까지 총 547명의 교사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였다. 2003년도에는 여름방학 기간에 3회, 겨울방학 기간에 2회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매회 5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강사진은 대학 및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의 전문가들이다.

산림생태환경교육과정은 홍릉숲의 생태 환경적 이해(홍릉숲 관찰을 통해 실시), 나무와 숲을 통한 환경교육(산림청과 UNDP가 공동으로 개발한 교재 활용), 목재의 주거 특성 및 주거생활, 주요 야생화의 종류 및 재배기술, 야생동물의 종류와 생태적 특성, 자연체험 학습 소개 및 실습, 산불 피해지 현장 체험, 자연휴양림 체험, 인류역사와 산림, 숲가꾸기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 학교숲 조성 및 체험

학교숲 조성사업은 1999년 (사)생명의숲이 도시숲 운동의 하나로 시작하였다. 학교숲 운동은 학교숲 조성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 중심의 운동, 조성절차를 중시하는 과정중심의 운동, 학교와 지역사회, 시민단체가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파트너십 중심의 운동,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활용 중심의 운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김인호 2003). 산림청에서는 2001년도부터 학교숲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150개 학교, 2004년도에는 300개 학교에 대한 학교숲 조성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단순히 도시생활권 지역의 녹지를 확충하고 도시외곽 숲과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떠나 학교숲 조성을 위한 기획 및 준비, 조성, 관리하는 단계별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학교숲 운동 자체가 학교환경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학교숲 조성사업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성된 학교숲을 환경교육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서울 화랑초등학교, 충주 목행초등학교, 부산 아미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숲이 환경교육 소재로 잘 활용되고 있다. 충주 목행초등학교의 학교숲 활용사례를 보면 숲속의 진흙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형물 만들기, 원목을 이용하여 움집, 귀틀집 지어보기, 원목을 이용하여 생활용품 만들기, 모형 시내와 연못을 꾸미고 연못 식물 기르기, 학교숲을 대상으로 글짓기, 그리기 하기, 우리꽃을 선택하여 직접 재배하고 관찰하기, 학교숲에 사는 동물에게 먹이주기, 자기 나무를 정하여 보살피고 일지쓰기, 사계절 변화모습을 사진찍고 관찰 일지쓰기, 학교숲에서 야영 체험하기, 학교숲 오솔길을 맨발로 걸어보기, 통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곳에서 하늘모양 관찰하기 등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년별 수준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사. 숲탐방 국민운동

숲탐방 국민운동은 2003년도부터 산림청과 (사)생명의숲이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주변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숲 체험을 할 수 있

도록 체험코스를 조성해 주는 사업이다. 즉 일반인과 청소년 등이 자기 안내식 또는 숲해설가의 안내를 받아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산림환경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03년도에는 우선 전국적으로 지자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22개소를 신청받아 그중 8개소를 선정하여 등산로변 숲체험 코스 조성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조성된 숲체험 코스가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의 산림환경교육 장소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숲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 대학의 산림분야 사회교육

대학의 산림분야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2003년도부터 산림청이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대학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의 산림전문가와 시설, 기자재 등을 활용하여 산주와 일반인이 산림과 임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앞으로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회 환경교육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12개 대학에서 교재개발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12개 대학중 대표적인 국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주와 일반인을 위한 산림학교 프로그램은 크게 산림환경, 산림경영, 생산이용, 산림문화 4개 분야 16개 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산림환경분야는 산림과 환경문제, 국토간호와 산림정책, 내산의 나무 구별하기, 산림과 사회와 정의 4개 과목, 산림문화 분야는 인터넷과 pc를 이용한 산림정보관리, 산림욕과 자연휴양림, 숲의 문화적 가치와 우리민족의 삶, 숲속의 예술학교 등 4개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기타 산림교육 프로그램

기타 산림청이 직접 또는 관련기관이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조선일보와 함께 하는 청소년 숲캠프, (사)한그루녹색회와 함께 하는 푸른숲선도원 선발 육성 및 자연캠프, (사)생명의숲과 함께 하는 소년소녀가장 산림생태기행 및 숲가꾸기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다.

2. 산림문화 프로그램

가. 산림문화의 개념

산림분야에서 산림문화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우리 산림이 우리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문학 및 예술작품, 종교, 우리의 생활양식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학자에 따라 산림문화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내리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산림문화란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는 산림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가치를 담아내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정의되고 있다(산림청, 1997).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문화 프로그램은 우리 문화속에 녹아있는 산림 문화 요소를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산림에서의 임업체험, 문학 및 예술체험, 산악레포츠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 산림문화작품공모전

산림문화작품공모전은 2001년도부터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공모전은 일반인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숲과 나무, 야생동물, 산촌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느낀 것을 작품화하는 과정에서 산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일반부의 경우 사진과 시(제1회 때는 그림 포함), 학생부의 경우 그림과 글짓기 분야로 나누어 작품을 공모하고 있으며, 대상은 일반부의 경우 국무총리상, 학생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매년 출품되는 작품의 수와 질이 향상되고 있다. 2003년도는 제3회째로 5,147명이 응모하였으며, 이중 231명이 입상하였다.

다. 산림 문학·예술 체험

숲은 우리에게 문학과 철학, 예술의 소재를 제공하고 또한 즐기는 장소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숲과 문학과의 만남, 숲속 음악회, 국악 한마당, 시 낭송회, 숲속 영화제 등을 자연휴양림 등에서 수시로 개최하여 일반인과 문학인, 예술인들이 함께 만나 서로의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문화일보와 공동으로 여론선도층 소나무 생태기행, 환경재단과 공동으로 산림환경포럼,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서울'과 함께 산림문학 기행 등의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들 프로그램을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2003년 4월 5일 제58회 식목일을 기념하기 위해 KBS와 함께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18일 제2회 산의 날을 맞아 전국 임업인 노래자랑을 개최하는 등 임업인과 일반인에게 숲과 임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특별 행사를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라. 산악레포츠 프로그램

최근 산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레포츠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오리엔티어링, 산악마라톤 등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산악레포츠이며, 서바이벌 게임, 산악스키, 산악승마 등 다양한 산악레포츠를 즐기려는 동호인이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늘어나는 산악레포츠 인구를 산림에서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산림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연친화형 산악레포츠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산악레포츠 공간 제공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02년도에 UN이 정한 '세계 산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청태산 자연휴양림에서 제1회 산림청장배 산악스키 대회 및 산악자전거 대회를 처음 개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오서산 자연휴양림에서 제1회 산림청장배 전국 오리엔티어링 대회를,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산악마라톤 교실을 개최하였다. 앞으로 일반인이 자연휴양림 등에서 산악자전거나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등을 직접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고, 산악스키교실 등과 같이 관련된 산악레포츠를 직접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마. 참여형 국유림 관리 프로그램

산림청에서는 많은 국민이 국유림을 쉽게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2003년도 10월부터 참여형 국유림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유림에서 나무를 심거나 숲가꾸기 체험, 또는 산림보호 활동 등을 하고 싶은 국민은 지정된 「자원봉사의 숲」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나 시민단체, 기업 등 단체가 일정지역의 국유림을 맡아 숲가꾸기나 숲체험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단체의

숲」을 지정 제공하고 있으며, 산악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산악레포츠의 숲」 지정하여 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참여형 국유림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이나 단체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신청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이와 같은 참여형 국유림 공간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바. 기타 산림문화 프로그램

이 밖에 산림청이 운영 또는 지원하고 있는 산림문화 프로그램으로는 1999년부터 농림부의 농·소·정 사업⁶⁾으로 지원받아 산림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산촌 체험 프로그램, 밤 줍기 등 임업 체험 프로그램과 (사)생명의숲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꽃누르미 전시회, 종이로 만든 우리꽃 전시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사)자생식물협회와 공동으로 우리꽃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3. 산림휴양·문화·교육정보의 제공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과 청소년들이 산림교육과 문화, 휴양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림청에서는 1999년 산림청 홈페이지에 휴양/문화 사이트, 나무교실 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0년 4월부터 한국산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937개 산(북한 및 외국까지 포함 1000개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 2월부터는 사이버 홍보교육센타를 구축하여 숲과 나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부터는 국가식물자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국의 식물정보, 특히 자생식물에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학생은 물론 교사들이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숲과 임업에 관련된 사항을 총 정리하여 제공하고, 사이버

6) 농업인과 도시소비자, 청소년들의 상호교류를 통해 도시소비자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비자 지향적인 영농을 유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간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부에서 프로그램 제안을 받아 심의 선정 지원하는 사업임.

숲체험 및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는 코너의 신설, 전국의 각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운영하는 산림문화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의 안내, 전국 100대 명산에 대한 안내, 전국 자연휴양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안내, 백두대간 등산로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산림휴양문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2004년도 상반기에는 사이트가 일반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4.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

산림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림환경교육 관련 주요 시책중의 하나는 숲을 소재로 한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는 일이다. 1999년도에 UNDP와 공동으로 개발한 숲과 나무에 대한 산림환경교육 교재는 산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산림환경교육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연구용역, 2001년에는 자연휴양림에서의 산림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자연휴양림마다 숲체험 코스를 개발하면서 이에 따른 가이드북을 리플렛 형식으로 함께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사)생명의숲과 함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청소년 녹색교육게임을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수행중에 있다. 폭력과 선정적인 인터넷게임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점에 청소년들이 숲과 자연환경의 중요성은 물론 생명존중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겸비한 숲과 자연을 소재로 한 녹색교육게임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성과가 좋으면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사)생명의숲과 공동으로 자연친화적인 등산문화를 확산하고 정상정복 위주의 등산 행태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면서 자연학습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숲 탐방 안내서를 제작 발간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움, 국제학술대회 등 다양한 형태의 토론 및 홍보의 장을 직접 마련하거나 지원하여 산림교육과 문화가 창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IV. 산림환경교육의 발전과제

제3장에서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하였지만 아직까지 질과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많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의 확산, 주5일 수업제의 도입, 체험학습 등 특별활동 시간의 확대 등으로 산림의 교육적 문화적 기능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질 것이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들 과제의 상당부분은 산림청에서 이미 검토중에 있거나 추진중에 있음을 밝혀 둔다.

1. 산림환경교육에 대한 비전과 전략 수립

산림청이 산림환경교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목적, 주 교육대상자, 프로그램 제공자와 파트너 등에 대한 비전과 목표, 구체적인 추진전략 등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산림환경교육의 주 대상자가 누구인지? 필요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산림환경교육 인프라는 어떻게 조성하며, 누가 교육을 담당해야 하며,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지? 산림환경교육을 통해 산림청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교육의 내용과 질적 수준에 대한 검토가 없이 외연 확대에만 집중하여서는 산림환경교육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산림청은 종합적인 산림환경교육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산림환경교육 자원 및 정보의 수집 관리 강화

산림환경교육에 사용되는 정보는 일반인의 환경태도 및 가치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정확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정보와 사례를 근거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림생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림의 경제적, 생태적,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산림환경교육에 필요한 자원과 산림문화유산의 발굴 및 수집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특히 우리민족이 산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던 전통적인 지식이나 경험 등에 대한 수집 노력이 필요하다. 소나무숲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봉산제도의 유적, 송계(松契)제도, 노거수, 당산목, 마을숲, 비보숲 등에 대한 조사 및 발굴, 숲과 나무, 자연 등이 소재가 된 예술·문학작품의 정리, 고유의 산 이름 찾기, 숲과 나무와 관련된 전통적 행사나 축제 조사 등 유무형의 산림문화 유산을 수집 정리해야 한다. 산림환경교육 자원과 유산, 정보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인쇄물 형태 또는 웹 사이트상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산림청이 상호 교환기능을 갖는 clearing house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산림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아직까지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은 산림청이 기획하고 지방산림관리청과 국립관리소 단위에서 실행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산림문화 프로그램의 경우도 지역축제나 산악레포츠 관련 대회가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산림휴양시설이나 기타 산림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교육과 산림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은 매우 저조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관련 축제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중 산림과 관련 있는 지역축제, 즉 충북의 바이오 산림문화축제, 봉화의 춘양목 축제, 양양·울진의 송이축제, 영월의 동강 뗏목축제, 원주의 한지축제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지원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4. 시민단체의 역할 증대 및 연대 강화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 기업체, 학계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숲해설가협

회(휴양림 숲해설 및 산림학교 운영), 생명의숲(숲가꾸기 체험, 소년소녀가장 산림생태 기행, 숲탐방국민운동, 학교숲 운영) 등 이미 다양한 숲관련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산림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지역단위의 다양한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역할 강화는 과거 정부 주도의 행정에서 기업과 지역사회조직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국정운영(governance)으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새로운 행정행태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시민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경쟁을 통한 중자돈의 지원, 교육자원과 재료의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5. 산림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성공여부는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과 임업에 대해 폭 넓게 이해하면서 일반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산림환경교육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산림청과 임업연구기관, 대학의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녹색수업 및 숲해설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산림과 임업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숲해설가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일본 임야청의 산림인스트럭터 자격제도⁷⁾와 같은 숲의 다양한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산림환경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숲해설가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숲해설가 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PLT(Project Learning Tree) 프로그램처럼 교사들을 위한 산림환경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환경교육을 통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림공무원의 산림환경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단위의 산림환경교육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환류의 강화,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

7) 농림수산대신의 고시에 따라 1991년부터 삼림인스트럭터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삼림인스트럭터가 되기 위해서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 및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삼림, 임업, 삼림내야외활동, 안전및교육 등 4개과목을 보며, 선발된 삼림인스트럭터는 (사)전국삼림레크리에이션협회에 등록하고 활동하며, 매 5년마다 등록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숲체험 형태에서 탈피하여 산림생태계 구성인자, 계곡의 물과 수생생물, 별자리 관측과 관련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림문화 유적지의 탐방, 우리나라의 소나무숲을 찾아서와 같이 주제를 제한하여 집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등이 목공예품 제작하기, 숯 굽기, 천연염색하기 등을 직접 체험하는 DIY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6. 산림환경교육 전용공간의 확충

현재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프로그램은 대부분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28개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0년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할 사항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체험학습장과 프로그램으로 답변하여 산림교육이나 산림문화 체험공간의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산림교육, 등산학교, 산림문화 체험 등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조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숲속에서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숙박시설, 다목적 강의실, 식당, 기자재실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를 활용하여 우리 주변에서 쉽게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숲체험 코스 조성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산촌마을을 숲체험과 산림문화 체험의 거점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7. 산림환경교육의 양적 확대

약 800만명에 달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제대로 자연학습교육과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 산림청이 운영 또는 지원하고 있는 산림교육이나 문화 프로그램의 혜택을 본 학생들은 연간 2~3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마땅한 산림교육 장소 및 프로그램의 부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의 제약,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수혜인원을 대폭적으로 늘이는데 어려움이 많으나 앞으로 체험 및 봉사학습시간이 늘어나는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감안할 때 산림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혜자를 늘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휴

양문화진흥종합대책에서 앞으로 2007년까지 연간 25만명에 대해 산림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8. 다양한 재원의 확보

산림청의 2003년도 산림환경교육 관련 예산은 25억원(학교숲 예산을 포함하는 경우 40억원) 정도로 전체 산림청 예산의 0.3%에 불과하다. 반면에 녹색자금, 농림부의 농·소·정사업 예산, 마사회 자금 등 다른 분야에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 자금은 약 18억원이며, 이중 금년도 로또수익금으로 조성된 녹색자금에서 지원된 금액이 16.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금규모로는 산림청이 목표로 하고 있는 연간 25만명의 일반인, 청소년에 대한 산림환경교육 기회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산림환경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림교육 및 문화 관련 정부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하며, 녹색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목재관련 기업 포함)에서 적극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9. 법적·제도적 정비

산림기본법에 반영되어 있는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진흥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산림의 휴양기능 강화,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의 진흥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산림휴양문화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즉 숲해설가 자격기준 및 양성에 관한 사항, 산림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에 관한 사항, 산림학교 및 등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산림휴양·교육·문화 분야의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의 산림교육·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산림문화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등이 법적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 행정조직과 인력의 확보를 위해 지방산림관리청별로 휴양문화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휴양림별로 별도의 전문적인 산림교육·문화 프로그램 전담자를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산림교육 미디어센터를 설치하여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영상자료 및 인쇄자료의 수집·관리 및 직접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V. 맺는 말

산림휴양, 산림교육, 산림문화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산림교육 및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를 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자아실현은 물론 심신을 건강하게 하고 자연친화적인 인식을 갖도록 산림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가 서구에 비해 산림환경교육 시책의 추진이 늦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산림환경교육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차근차근히 개선해 나가면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의 실시, 주5일 수업제의 실시, 연중 휴가제의 도입 등으로 산림환경교육 분야는 산림정책의 주요과제로 대두될 것이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단계적 실천이 필요하다.

앞으로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림환경교육에 대해 관련 정부기관은 물론 숲관련 시민단체, 환경교육 관련 단체와 학회, 일반국민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생략)